

##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에 대한 문맥적 이해와 번역 재고

김선욱\*

### 1. 서론

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온 그리스어 부사 ἀτάκτως를 “게으르게”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 단어는 교회의 규율과 징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3:6-15에 두 번(6, 11절) 나온다. ἀτάκτως는 BDAG 사전에서 가장 먼저 “disorderly”(무질서하게, 무법적으로, 풍기문란하게)란 의미로 제시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6, 11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περιπατέω와 함께 사용되면 “behave irresponsibly”(무책임하게 행동하다)란 뜻을 가진다고 나온다.<sup>1)</sup> ἀτάκτως의 형용사형인 ἄτακτος 또한 “disorderly”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insubordinate”(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이나 “undisciplined”(규율이 잡히지 않은, 버릇없는) 등의 의미도 가진다.<sup>2)</sup> ἀτάκτως에 대한 영문 번역은 번역본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번역본을 살펴보자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과 English Standard Version(ESV)에서는 단순히 “in idleness”(게으르게)로 번역한다. 반면에 New King James Version(NKJ)은 “disorderly”로,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은 “idle and disruptive”(게으르고 불화[분열]를 일으키는)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한 의미로 번역한다.<sup>3)</sup> 한글 성경에서도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게으르게”(“게으른”)로, 『새번역』은 “무질서하게”로, 『현대인의 성경』은 “제멋대로”로 번역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ἀτάκτως가 단순히 “게으르게”로 번역할 경우 바울이 책망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과 특성, 그리고 행동을 정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겸임교수. sunwook5394@hanmail.net.

1) BDAG, 148.

2) Ibid.

3) 필자는 수많은 영문 번역 성경들 중에서 학문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영문 번역본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연구한다.

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sup>4)</sup> 그리고 역사적 상황과 문맥적 이해를 통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ἀτάκτως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마틴(D. Michael Martin)은 ἀτάκτως란 용어는 영어의 “idle”(게으른)로 번역할 경우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sup>5)</sup> 빌(G. K. Beale) 또한 이렇게 번역할 경우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sup>6)</sup> 필자 또한 ἀτάκτως를 단순히 “게으르게”로 번역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게으르고 거역하는’(idle and insubordinate)—더 강한 의미로 ‘게으르고 반역하는’(idle and rebellious)—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이에 따라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sup>7)</sup> 이 논증을 위해 필자는 데살로니가후서 3:6-15의 구조 분석, ἀτ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와 그들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소개,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문 전체를 주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문맥적 이해를 통해 ἀτάκτως와 이것의 형용사형인 ἄτακτος(살전 5:14)와 동사형인 ἀτακτέω(살후 3:7)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데살로니가후서 3:6-15의 구조 분석과 문맥적 이해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살후 3:6-15)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기도에 대한 요구(3:1-5); 거역하는 게으른 자들(insubordinate idlers)에 대한 교회 징계(규율)(3:6-15);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3:16-18). 우리가 연구할 두 번째 단락(3:6-15)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4) 한글 번역 성경 또한 근래에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 있지만, 필자는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공동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의 한글 번역본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연구한다.

5)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273. 그리스어 부사 ἀτάκτως는 동사 τάσσω(요동케 하다)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G. Dellings, “τάσσω”, *TDNT*, Vol. 8, 27-48을 참조하라.

6) Beale은 살전 5:14의 ἄτακτος(ἀτάκτως의 형용사형)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idle”(게으른)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G. K. Beale, *1-2 Thessalonians*, IVPNTC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249.

7) 비록 ἀτάκτως가 부사이지만 본 논문에서 한글 번역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표현과 쉬운 설명을 위해 형용사로 제시한다. 또한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사를 형용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영어 번역에서도(예: NIV) 부사를 형용사로 번역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앞과 뒤의 단락들과 구별된다. 첫 번째 단락(3:1-5)은 전형적인 기도 요청의 형식으로 기도에 대한 호소로 시작(1-2절)해서, 기도의 내용(3-4절)을 말하고, 축도로 기도를 마친다(5절).<sup>8)</sup> 이 단락의 끝부분인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마지막 간구를 하는데, 이 때 동사의 법(mood)은 희구법(optative)으로 바뀐다(κατευθύναι). 부정과거 희구법은 일반적으로 기도에서 사용되며, 바울 당시에는 기도의 형식과 맹세에 있어서 희구법이 사용되곤 했다.<sup>9)</sup>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기도를 요구한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그들에게 강하게 명령을 내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의 구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째, 기도 요청에서 교회 징계(규율)와 관련된 명령으로 바뀐다. 첫 번째 단락의 기도 요청에서 바울은 사악한 자들로부터의 구원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머물라는 권면을 하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 징계(규율)로 이동한다. 둘째,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뀐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그의 일행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 그는 매우 강한 어조로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떠나라고 명령한다(6절). 셋째, 6절에서 새로운 단락으로의 전환 표시(transitional marker)가 나온다.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ὅτι가 화제를 바꾸기 위한 개시어(opening word)인 ‘자’(now)의 의미로 사용되고,<sup>10)</sup> 호격인 ἀδελφοί(형제들아)가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3:16-18)의 구분과 관련하여, 두 번째 단락의 끝이 15절인지 아니면 16절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서신을 마칠 때, 종결 단락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6절에 나오는 ‘평안을 비는 축도’(peace benediction)이고, 둘째는 17절에 나오는 ‘자필 인사’(autograph greeting)이다.<sup>11)</sup> 와이마(Jeffrey A. D. Weima)에 따르면, 바울 서신에서 평안을 비는 축도는 일반적으로 서신을 끝맺는

8)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61-270을 참조하라.

9) Abraham J. Malherbe, *The Letter to the Thessalonians*, AB (New York: Doubleday, 2000), 212. 바울은 살전 3:11-13의 마침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부정과거 희구법(κατευθύναι, 11절)을 사용하는 반면, 살후 3:1-5에서는 기도 요청의 마무리를 맺기 위해 동일하게 부정과거 희구법(κατευθύναι, 5절)을 사용한다. 희구법은 기도의 시작과 끝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10) Ibid., 449.

11) Jeffrey A. D. Weima, *Neglected Endings: the Significance of the Pauline Letter Closings*, JSNTSup 101 (Sheffield: JSOT Press, 1994), 187.

단락의 처음 부분에 위치한다.<sup>12)</sup> 많은 학자들은 평안을 비는 축도(16절)가 둘째 단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만,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와 연결되어 평안을 간구하는 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13)</sup> 서신 말미에 붙이는 형태인 평안을 비는 축도를 경고와 훈계의 내용이 담긴 두 번째 단락과 연결시키는 것보다, 서신 전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이해해서 서신서를 마무리 짓는 끝인사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평안을 비는 축도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 내의 분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전체를 마무리하며 평안을 간구한다는 측면에서 환란과 시련 가운데 고통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예: 살후 1:3-12)을 향한 평안의 간구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6절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평안의 간구로 본다면, 그것은 외적 환란이나 내적 분란 모두에 대해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가 될 것이고, 따라서 16절을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와 관련시킬 수도 있고 바로 앞 단락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다. 16절을 독립된 구절로 이해할 수 있지만 끝맺는 인사 단락으로 17, 18절과 함께 묶어 본다면, 두 번째 단락은 15절로 마치게 되고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시작하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세 단락은 구분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빌은 두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단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3:2는 두 단락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sup>14)</sup>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3:2에 나오는 ἄτομος(『개역개정』에서는 “부당한”으로 번역; 사전적 의미로는 “pertaining to being behaviorally out of place”<sup>15)</sup>—‘규정에 벗어나게 행동하는’ 또는 ‘제 위치에서 벗어나 행동하는’)한 자들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행위들에 대한 것이다.<sup>16)</sup> 바울은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는데(6절), 그들의 행동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렇다면 교회 내에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으로 그들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와도 관련시켜 살펴볼 것이지만, 먼저 인접 문맥을 통해 볼 때 데살로니가후서 3

12) Ibid.

13) Ibid.

14) G. K. Beale, *1-2 Thessalonians*, 248.

15) BDAG, 149.

16) G. K. Beale, *1-2 Thessalonians*, 248.

17) Ibid.

장의 내용은 전장인 2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과 연결된다.<sup>18)</sup> 3:1의 τὸ λοιπόν(끝으로)은 바울의 일반적인 사용 용례로 볼 때(특별히 살전 4:1을 보라) 앞 단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앞뒤 단락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이해해야 한다.<sup>19)</sup> 따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3장은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20)</sup> 2장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3장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별히 2:15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명령과 3:6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명령은 바울과 그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준 παράδοσις(전통)과 관련해서 단어 상의 명확한 일치를 보여주며, 또한 2장과 3장은 각각 바울이 전해준 전통과는 다른 가르침과 다른 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내용이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면, 3장은 윤리적 차원에서 그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 내의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교회의 규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3장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과, 그에 따른 잘못된 윤리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논하는 데살로니가후서 3:6-15는 바울이 다루고 있는 대상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과 관련된 징계(6-12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권고(13-15절)이다. 첫 번째 부분은 6절과 12절에서 동일한 그리스어 παραγγέλλομεν(우리가 명하노니)을 사용하면서 인클루지오 형태를 보여준다. 바울은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한다(6절). 바울은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지금껏 보여준 본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한다(7-10절). 바울은 다시금 거역하는 게으른 자들의 행태를 언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명령한다(11-12절). 두 번째 부분은 거역하는 게으른 자들을 제외한 교회 구성원

18) Ibid., 235.

19) Ibid.

20) 데살로니가후서가 매우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Robert Jewett, *The Thessalonian Correspondence: Pauline Rhetoric and Millenarian Piety* (Philadelphia: Fortress, 1986), 80을 참조하라.

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과 교회의 징계가 잘못을 범한 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형제애임을 말한다(13-15절). 필자는 앞으로 이 단락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해할 것이고, ἀτ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정체와 특성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연구하면서 ἀτάκτως의 의미와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ἀτ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정체와 특성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ἀτ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와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종말론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뉜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은 다시 여러 견해들로 제시된다.<sup>21)</sup> 필자는 다섯 가지 견해들을 열거하고자 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회적 관점에 따른 견해들이고, 다섯 번째 견해는 종말론적 관점에 따른 견해이다.

첫째, ἀτ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견해이다. 마샬(I. Howard Marshall)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행동하게 된 원인이 당시 헬레니즘의 문명사회에서 육체노동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22)</sup>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러셀(Ronald Russell)은 육체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헬라 사회의 상류층에서나 있는 것이지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계층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름의 원인이 육체노동에 대한 경멸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sup>23)</sup>

21) 참고, 마틴은 ἀτ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다. 필자는 마틴이 소개하는 견해들과 그의 반론들을 다수 참조하였다.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3-277.

22) 예: I. Howard Marshall, *1 and 2 Thessalonians: Based o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NBC (Grand Rapids: Eerdmans, 1983), 223. 말허비는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에피쿠로스학파의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갔을 수 있다고 말한다. Abraham J. Malherbe, *Social Aspects of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3), 24-27. 그는 또한 개종자들이 견유학과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 설파하는 자들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Abraham J. Malherbe, *Paul and the Thessalonians* (Philadelphia: Fortress, 1987), 101.

23) Ronald Russell, "The Idle in 2 Thess 3.6-12: An Eschatological or a Social Problem?", *NTS* 34 (1988), 108; G. K. Beale, *1-2 Thessalonians*, 113; Bruce W. Winter, "'If a Man does not Wish to Work...': A Cultural and Historical Setting for 2 Thessalonians 3:6-16", *Tyndale Bulletin* 40 (1989), 304.

둘째, 그들은 세상적인 직업을 통해서가 아닌 교회에 의지해서 경제적 도움을 얻는 교회 일꾼들의 작은 그룹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경우 3:7-9에서 바울이 자신이 행한 모범을 언급한 것과, 그들을 ἀδελφός(6b절)—형제란 용어를 교회 사역자에 대한 전문적 용어로 이해할 경우—로 부른 것과 관련해서 설득력이 있다.<sup>24)</sup> 하지만 이 경우에 그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6절), 일만 만들고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11절)—ἀτάκτως의 의미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차원을 넘어서 거역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무질서하게 만드는 등의 행동을 뜻한다—점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교회에 의존하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지도자들로 이해할 수는 없다.<sup>25)</sup> 또한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들의 생계 수단을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들을 비추어 볼 때(예: 베드로, 주의 형제들, 다른 사도들; 고전 9:5-12), 만일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 그룹으로서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로부터 떠나고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식의 심각한 교회 징계를 내리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26)</sup>

셋째, 그들은 일거리가 없는(고용되지 않은) 가난한 하층민들로 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고함 없이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는 자들이라는 견해이다. 그들은 교회가 주는 혜택만 받는 데 익숙할 뿐이지, 그에 대한 보답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자들이다.<sup>27)</sup> 하지만 멘켄(M. J. J. Menken)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고용되지 않아서 그들의 생계를 교회에 의존한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이 일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의도적으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일만 만들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행동을 설명하지는 못한다.<sup>28)</sup> 일거리가 없어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며 타인의 물질적 도움을 감사한 마음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몰염치한 사람들이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넷째, 그들은 당시 그레코-로마 세계의 ‘후견—피후견’(patron—client) 관계의 사회적 관습에 의거해 일하지 않는 피후견인들(clients)이라는 견해이다. 윈터(B. W. Winter)는 이러한 후견—피후견 관계에 있는 피후견인들이

24) Edward E. Ellis, “Paul and His Co-Workers”, *NTS* 17 (1971), 450-451.

25)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4-275.

26) *Ibid.*, 275.

27) Ronald Russell, “The Idle in 2 Thess 3.6-12”, 113.

28) M. J. J. Menken, “Paradise Regained or Still Lost? Eschatology and Disorderly Behaviour in 2 Thessalonians”, *NTS* 38 (1992), 273-274.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워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sup>29)</sup> 가난한 피후견인들은 부유한 후견인들(patrons)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고, 후견인들은 피후견인들을 도와 줌으로써 공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sup>30)</sup> 이러한 관계 속에서 후견인들은 그들의 피후견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사회적 의무가 있고, 만일 이 관계를 끊어버릴 경우 후견인들은 피후견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다.<sup>31)</sup> 당시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후견—피후견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고, 이러한 관습에 익숙한 피후견인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면서 공동체 내부에 문제를 일으켰다.<sup>32)</sup>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피후견인 신분으로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후견인들의 도움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한 후견인 신분으로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피후견인에 대해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sup>33)</sup> 대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benefactors)이 되기를 권고한다(살후 3:13).<sup>34)</sup> 비록 이 견해가 당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 있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후견—피후견 관계의 사회적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했을 것인지가 의문이 된다.<sup>35)</sup> 바울은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ἀτάκτως의 의미는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반항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단지 일하지 않는 피후견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sup>36)</sup>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11-12에서 바

29) 윈터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논의를 제시한다: “(1) ‘후견—피후견’ 관계; (2) 후견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바울의 요구; (3)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했던 가능성 있는 이유로는 마케도니아 지경에 있는 기근을 신의 섭리(providentia)로 이해; (4) 피후견인들이 아닌 은혜를 베푸는 자들(benefactors)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Bruce W. Winter, “‘If a Man does not Wish to Work...’”, 303-315. 이 견해와 관련해서 Charles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0), 281-282;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342; Bruce W. Winter,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Christians as Benefactors and Citizens (First-Century Christians in the Graeco-Roma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1994), 41-60; Richard P. Saller, *Personal Patronage under the Early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를 참조해 보라.

30)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342.

31) Bruce W. Winter,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47.

32)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5-276.

33)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342.

34) Ibid.

35)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6.

36) Ibid.



울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인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행동이 수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후견—피후견의 시스템 속에서 게으름은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후견—피후견의 사회적 관습에 익숙한 피후견인들(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과거 바울 자신이 손수 일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일하기를 권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37)</sup> 따라서 후견—피후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정황적 해석이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째, 그들은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데살로니가전후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인 종말론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38)</sup>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은 일하기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수고는 종말의 때에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들(살전 4:13-5:11; 살후 2:1-17)은 데살로니가전후서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고, 교회 구성원들 중의 일부가 종말의 사건들이 임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ἀπάκτως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일하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내용은 4:11-12와 5:14에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에 대한 내용(4:13-5:11)을 앞뒤로 감싸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그들에 대한 내용이 3:6-15에 나오며, 이 단락은 종말의 주의 날에 대한 내용(2:1-17) 뒤에 위치한다. 종말에 대한 오해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sup>39)</sup>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 물질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필요성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며 혼란하게 만든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의 종말에 대한 잘

37) 살전 5:14도 후견—피후견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게으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8) Beale은 이 견해를 지지하면서 그의 책에서 자세히 논증하고 있다. G. K. Beale, *1-2 Thessalonians*, 248-257을 참조하라.

39)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6.

못된 이해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해준 전통(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3:6)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어지럽힌다(3:11).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περιεργαζομένων)이란 표현에서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옳지 못한 위험한 행동이다.<sup>40)</sup>

하지만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의 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 데살로니가전후서 어디에서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ἀτάκτως한 자들을 만들어내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명확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sup>41)</sup> 둘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미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명령한 적이 있기 때문에(살후 3:10),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일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sup>42)</sup>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 비록 일하지 않는 자들이 생긴 이유가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서신들은 종말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의 발생 원인이 잘못된 종말의 이해와 거짓 가르침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2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는데, 이는 아마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극단적이고 열광적인 자들이 생겨나 생업을 포기하며 일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sup>43)</sup> 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으로부터 개념적 연관성과 어휘의 유사성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sup>44)</sup> 데살로니가후서 3:1-5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3:2의 ἄτοπος(『개역개정』—“부당”한; ἀτάκτως와 유사하게 “out of place”[제자리에 있지 않는, 제멋대

40) Ernest Bes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BNTC (London: Continuum, 1986), 334.

41) Michael W. Holmes, *1 & 2 Thessalonian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1998), 268;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4.

42) Ronald Russell, “The Idle in 2 Thess 3.6-12”, 108.

43) Beverly R. Gaventa,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8), 129.

44) G. K. Beale, *1-2 Thessalonians*, 249-250.

로]의 의미를 가짐)하고 πονηρός(『개역개정』—“악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은 2장의 ἀνομία(『개역개정』—“불법”[lawlessness])의 주제와 계속해서 연결된다. 또한 이어지는 3:6-15에서는 실생활의 윤리적 차원에서 2장과 3:1-5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빌은 이 네 단어들, 즉 2장의 ἀνομία, 3:1-5의 ἄτοπος와 πονηρός, 그리고 3:6-15의 ἀτάκτως가 서로 유사성을 가지면서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대되는 가르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을 암시하고 있다.<sup>45)</sup> 따라서 2:1-17의 불법의 주제와 관련된 종말에 대한 내용은 3:1-5를 거쳐 3:6-15로 계속 이어지며 윤리적인 실생활에서 드러나게 된다. 결국 3:6-15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오해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3:10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명령은 교회 내에 있는 일하지 않는 피후견인들을 향해 만들어진 말이라기보다는 초대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온 교리문답적인 교훈(catechetical instruction)이거나,<sup>46)</sup> 창세기 3:17-19를 반영한 것으로,<sup>47)</sup> 바울이 일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온 말일 수 있다.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 3:7-10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본을 통해 교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육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일했던 것은 경제적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한 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고전 9:1-18을 비추어 살후 3:10을 해석).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ἀτάκτως한 행동과는 반대로, 질서 있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외인들로 하여금 거리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했던 본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ἀτάκτως한 자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sup>48)</sup> 바울이 3:10에서 한 말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는 3:6의 말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와 동역자들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라는 3:14의 명령을 예기하게 만든

45) Ibid.

46) Ernest Bes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338.

47) Beale은 Menken을 인용하면서 창 3:17-19의 “일”, “먹다”, “뺨” 등의 단어가 살후 3:12에도 나타남을 통해 이들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또한 살후 3:6에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3:10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G. K. Beale, *1-2 Thessalonians*, 256; M. J. J. Menken, “Paradise Regained or Still Lost?”, 278-280.

48) G. K. Beale, *1-2 Thessalonians*, 255.

다.<sup>49)</sup>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당시 했던 이 말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교회 내의 피후견인 성도들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교회에 부담을 주는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ἀτάκτοι, 살전 5:14).<sup>50)</sup>

ἀτάκτως 한 자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서 받은 전통(παράδοσις)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살후 3:6). 여기서 전통이란 바울이 말과 글을 통해 전해 주었던 그의 모든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전통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후서 3:6-15가 3:1-5와 2:1-17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르쳐온 전통은 2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내용과 관련성이 깊을 수 있다. 즉, 2장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관련해서 ἀτάκτως 한 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르쳐준 전통을 거부한다는 것이다.<sup>52)</sup> 와이마는 ἀτάκτως에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rebellious”(반역하는)로 이해한다.<sup>53)</sup>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거짓된 종말의 이해와 전파를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반역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자들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거역의 행동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3:11)이 된다는 것에 또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ἀτάκτως 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sup>54)</sup> 여하튼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했는데, 분명 그들은 가만있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여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49) Ibid.

50) 살전 5:14의 형용사 ἄτακτος (여기서는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됨) 또한 게으름의 의미를 넘어서 어지럽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 한글 『개역개정』 번역은 “게으른 자들”로 되어 있지만 NKJ에서는 “those who are unruly”(제멋대로 구는 자들), NIV에서는 “those who are idle and disruptive”(게으르고 불화[분열]를 일으키는)로 번역한다. NRS와 ESV에서는 단순히 “idlers, idle”(게으른 자들)로 번역한다. 이러한 각각의 번역은 살후 3:6, 11의 ἀτάκτως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1) 살후 3:6을 2:15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과 연결시켜볼 때 전통이란 바울의 말과 글을 통해 가르친 내용 전체를 지칭할 수 있다. G. K. Beale, *1-2 Thessalonians*, 251.

52) Ibid., 255.

53) Jeffrey A. D. Weima, *1-2 Thessalon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14), 578-630의 살후 3:1-15의 자세한 해설을 참조하라. 와이마는 ἀτάκτως 한 자들에 대해 “rebellious idlers”(반역적인 게으른 자들)란 표현을 쓰며 그들의 특성을 이해한다.

54) G. K. Beale, *1-2 Thessalonians*, 255.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일을 만드는’(περιεργάζομαι)이란 표현을 썼다.<sup>55)</sup>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교회에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든다. NIV는 ἀτάκτως을 “idle and disruptive”로 번역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으름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더 나아가 불화하게 만들고 파괴적인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종말론의 관점에 따라 ἀτάκτως한 자들의 특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른 번역이 요구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들의 특성을 짧게 정리하자면, 첫째, 그들은 일하지 않고 또한 일하려 들지도 않는 게으른 자들이다(3:6, 10, 11). 둘째,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전해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한다(3:6; 참고, 3:14). 셋째, 그들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말과 편지로 가르쳐 준 전통은 교리와 행실 전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좀 더 좁혀서 본다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2:15; 3:6). 그들은 종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넷째, 그들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불화와 분열을 조장한다(3:11). 그들은 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일들을 만들어 내거나 타인의 일에 참견하는 등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든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내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종말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낸다. 이상의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볼 때, ἀτάκτως를 단순히 “게으르게”로 번역하기보다는,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해서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5) 한글 번역에서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지만, 바울은 살후 3:11에서 그리스어의 언어유희(wordplay)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스어 ἐργάζομαι(일하다)와 이 단어에서 파생된 περιεργάζομαι(περί와 ἐργάζομαι의 합성어: “주제님께 바쁘게 설쳐대다”, “쓸데없이 참견하다”)를 병치시켜서 ἀτάκτως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μηδὲν ἐργαζομένους ἀλλὰ περιεργαζομένους(“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지만 하는 자들”). NIV는 이러한 그리스어의 언어유희를 보여주기 위해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로 번역하지만, “They are not busy”(그들이 바쁘지 않다)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μηδὲν ἐργαζομένους의 의미는 “그들이 바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들이 일하지 않는다”(더 나아가 “일하기를 거부한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342를 참조하라.

#### 4. 종말론적 관점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6-15의 주해와 그에 따른 ἀτάκτως의 의미

데살로니가후서 3:6-15의 윤리적 권면 단락은 바울의 강한 명령이 담겨 있는 6절에서 시작하고, 이 구절은 전체 단락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스어 ἀτάκτως에는 ‘게으른’(idle)의 의미뿐만 아니라 ‘무질서한’(disorderly), ‘제멋대로의’(unruly), ‘거역하는’(‘순종하지 않는’, insubordinate)의 뜻도 있고, 더 나아가 문맥상 ‘반역하는’(rebellious)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ἀτάκτως한 자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름 뿐만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과 전통을 거역하고(6절),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어지럽힌다(11절). 만일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종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바울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sup>56)</sup> 이러한 모습은 다분히 반역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강한 어조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그들 안에 있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공동체가 따라야 할 교회 규율이며 징계이다. 바울이 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란 어구를 첨가한 것은 사도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반역적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낸다.

바울은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 교인들로 하여금 두 가지 점(행동과 말)을 상기하도록 만든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몸소 보여준 사도적 모범의 행동을 상기시킨다(7-9절).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일과 관련하여 본받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7a절). 이 구절에 사용된 δεῖ는 데살로니가전서 4:1에서도 나오듯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를 가리킨다.<sup>57)</sup>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행동으로 실천한 모범을 제시한다. 그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7b절).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동사 ἀτακτέω는 형용사 ἄτακτος의 동사형으로(참고, ἀτάκτως는 ἄτακτος의 부사형), 일차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다’(behave inappropriately)란 의미가 있고, ‘규정된 질서(명령)를 어긴다’ 또는 ‘훈련되지 못하다’ 등의 뜻도 있다.<sup>58)</sup> 7b절에서 바울이 ἀτακτέ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6절에 말한 전통의

56) G. K. Beale, *1-2 Thessalonians*, 250-251.

57) *Ibid.*, 251.

58) BDAG, 147. 동사 ἀτακτέω는 형용사 ἄτακτος에서 의미를 유추하여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규율대로 행하지 않는다”(to be undisciplined)의 뜻을 가질 수 있다.

의무를 스스로 지켰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9)</sup> 바울 당시의 교사(랍비)들은 학생들에게 말과 행동 양식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여 주었고, 학생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따르며 모방하였다.<sup>60)</sup>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몸소 보여주었고, 그것이 그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되었다. 그는 이어지는 8절에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한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은 “밤낮으로”(νυκτὸς καὶ ἡμέρας) 일했다고 말하는데,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했다는 것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세상적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도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참고, 살전 2:9).<sup>61)</sup> 생계를 위해 돈을 벌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교회에 부담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범을 안다고 강조할 수 있었다(Αὐτοὶ γὰρ οἴδατε, 7절).<sup>62)</sup>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친 대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졌지만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한다(9절). 고린도전서 9:14에서 바울은 주의 명령에 근거해 자신이 교회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모범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1-12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불순한 동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취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sup>63)</sup>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권리 포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3:6-15의 주된 목적은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그들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권고와 징계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거하면서 사역할 당시에 그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의 말을 상기시킨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10절).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접속어 ‘왜냐하면’(γάρ,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음)은 7절의 ‘왜냐하면’(γάρ, 여기서도 『개역개정』에는 번

59)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346-347.

60)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78.

61) Ibid., 279. 살전 2:9도 참조하라.

62) 대명사 αὐτοί는 강조의 기능을 한다.

63) Charles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284.

역되지 않음)과 문맥상 평행이 되어 나오는데, 이는 7-9절까지가 바울 자신이 보여준 모범적 행동을 상기시키고 있다면, 10절은 자신이 가르친 말을 상기시킨다.<sup>6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어 θέλω(원하다)인데, 이 단어가 나온 부분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으로, 이것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sup>65)</sup> 일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바울은 3인칭 명령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먹지도 말게 하라”(μηδὲ ἐσθίετω)고 명령하며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sup>66)</sup>

바울은 11-12절에서 명령의 대상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들 안에 있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로 바꾼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11절의 “듣다”라는 그리스어 동사 ἀκούομεν은 현재 시상으로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음을 함의한다.<sup>67)</sup> 그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반복적인 행동은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데, 이는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sup>68)</sup>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 빌에 따르면, 그들이 교회 내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거짓 가르침을 퍼트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sup>69)</sup> 디모데전서 5:13에서도 게으름과 일만 만드는 행동을 거짓 가르침과 교사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sup>70)</sup> 중

64) 살후 3:10의 καί(“~에도”; even)는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도 또한 상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D. Edmond Hiebert, *The Thessalonian Epistles: A Call to Readiness* (Chicago: Moody, 1971), 344.

65) Charles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285-286.

66)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342.

67) D. Edmond Hiebert, *The Thessalonian Epistles*, 345.

68)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82.

69) G. K. Beale, *1-2 Thessalonians*, 249.

70) Ibid., 252. 비록 딤후 5:13의 “게으름”과 “일을 만드는 자들”의 그리스어 단어가 ἀργαί와 περιέργοι로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들을 표현하는 단어와 다르지만,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게으르고 일을 만들지만 하는 자들 또한 디모데전서에 비추어 볼 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하다.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은 지나친 열광주의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거짓된 종말론을 퍼트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은 최근 바울에 의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데살로니가후서 3:12에서 두 개의 동사 παραγγέλλομεν καὶ παρακαλοῦμεν(우리가 명하고 권한다)의 조합과 전치사구 ἐν κυρίῳ Ἰησοῦ Χριστῷ(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의 명령의 권위와 순종의 요구를 강조한다.<sup>71)</sup> 하지만 ‘명령하다’에 덧붙여진 ‘권하다’는 바울의 어조가 다소 부드러운 것임을 암시하는데,<sup>72)</sup> 이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형제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다룰 것을 보여준다(15절). 바울은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한다(12절). 여기서 전치사구 μετὰ ἡσυχίας(조용함을 가지고)는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sup>73)</sup> 바울은 요동하지 않는 내적인 안정의 상태를 삶의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앞선 그의 편지에서도 이를 언급한다(살전 4:11). 조용함은 내적 평온과 침착함의 상태로 외적으로 일만 만드는 분주한 행동과는 반대되는 것이다.<sup>74)</sup> 따라서 조용히 일하라는 명령과 권고는 분명히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동요하고 흥분된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이다.

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데살로니가후서 3:13-15에서 바울은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교회의 징계를 행사해야 할 것을 공동체에게 다시금 말한다.<sup>75)</sup> 13절은 ὑμεῖς δέ, ἀδελφοί(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로 시작하는데, 이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을 제외한 교회 구성원들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어 καλοποιέω를 ‘선을 행하다’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옳은 일을 하다’(to do right) 또는 ‘은혜를 베풀다’(to confer benefits)로 번역할 수 있다.<sup>76)</sup> 본 단락의 전체 문맥과 교회의 징계(규율)라는 중심 주제의 측면에서 ‘옳은 일을 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sup>77)</sup> 바울은 게으르고 거

71) Gene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352.

72)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83.

73) D. Edmond Hiebert, *The Thessalonian Epistles*, 347.

74) Ibid.

75) Charles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288. 살후 3:13의 ὑμεῖς δε는 강조의 기능을 가지며 ἄτακτοι와 대조를 이룬다. Frederick F. Bruce, *1 & 2 Thessalonians*, WBC (Waco: Word Books, 1982), 208.

76) I. Howard Marshall, *1 and 2 Thessalonians*, 226.

77) NRS에서는 전자로, 그 밖의 NIV, NKJ, ESV 등에서는 후자로 번역한다.

역하는 자들을 다룰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다. 한편으로, 교회 성도들은 일하지 않고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는 그들의 행태에 낙담하여 도움의 손길을 멈추려는 것이다.<sup>78)</sup> 다른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무분별한 요구와 불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의 미덕과 교회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14절의 조건절—“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은 바울이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sup>79)</sup> 하지만 바울은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하는데, 이는 그러한 자를 정죄하여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바울 당시에 ‘수치’(shame)는 개인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울이 게으르고 반역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수치를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순종함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리는 징계라고 할 수 있다.<sup>80)</sup> 15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하며 형제애로 교회의 징계를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을 교회 밖의 외인들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교회 내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다룰 것을 의미한다.<sup>81)</sup> 바울이 명령한 교회의 징계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보호 사역’의 기능을 하고 있다.<sup>82)</sup>

## 5. 그리스어 ἀτάκτως의 번역에 대한 제안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ἀτάκτως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역사적 상황과 문맥적 연구를 통해 이해했고, 이 단어를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단어를 단순히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NIV는 이것을 “idle and disruptive”(게으르고 불화[분열]를 일으키는)의 두 단어로 번역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

78)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84.

79) Charles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288.

80) Michael W. Holmes, *1 & 2 Thessalonians*, 275-276. 수치심을 느끼는 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공동체의 규율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참고, 고전 4:14; 딤후 2:8). D. Michael Martin, *1, 2 Thessalonians*, 286.

81) Michael W. Holmes, *1 & 2 Thessalonians*, 276.

82) Ibid.

고 한글 번역에서도 두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데살로니가전후서에 사용된 ἀτάκτως는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게으른’의 의미가 담겨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10에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을 비추어 볼 때, ἀτάκτως한 자들은 일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이고 따라서 ‘게으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NKJ에서는 이 단어를 “disorderly”(무질서한)로 번역하고, 한글에서 『새번역』은 “무절제하게”, 『현대인의 성경』은 “제멋대로”라고 번역하는데, 이러한 번역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특별히 『새번역』의 “무절제하게”(3:6, 7, 11)는 데살로니가전후의 내용과 상황적 어감에도—절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식의 의미가 아니다—잘 맞지 않는 번역이다. 또한 NRS나 『개역개정』에서 처럼 ἀτάκτως를 ‘게으른’이라고 한 단어로만 번역하는 것도 이 단어의 의미를 문맥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ἀτάκτως가 ‘거역(불순종)하는’, 또는 ‘반역하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ἀτάκτως한 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3:6; 참고, 3:14).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행위이다. 둘째, 그들은 조용히 일하지 않고 떠들썩대며 일만 만드는 자들로서 교회를 어지럽힌다(3:11).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일할 필요가 없다고 오도하며 분주히 떠돌고 다닌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 혹은 전통을 거부하며 다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반역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필자는 ἀτάκτως가 ‘게으른’과 ‘거역하는’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데살로니가전후서에는 ἀτάκτως의 형용사형인 ἄτακτος(살전 5:14)와 동사형인 ἀτακτέω(살후 3:7)가 나온다. 형용사형인 ἄτακτος는 문장 내에서 τοὺς ἀτάκτους로 나오는데, 이것은 형용사의 실명사적 용법으로 NRS와 ESV에서는 “idlers”(게으른 자들)로 번역하는 반면에, NKJ에서는 “those who are unruly”(제멋대로 구는 자들)로 번역한다. NIV에서는 “those who are idle and disruptive”(게으르고 불화[분열]를 일으키는 자들)로 번역한다. 한글 번역에 있어서,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τοὺς ἀτάκτους를 “게으른 자들”로, 『새번역』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로, 『현대인의 성경』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로 번역한다. 필자는 데살로니가후서 3:16에서 ἀτάκτως를 번역한 방식으로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동사형인 ἀτακτέω는 바울 자신이 ἀτάκτως한 자들과 반대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NRS와 ESV는 ἀτάκτως와 대응하여 일관성 있게 “to be idle”(게으르게 행동하다)로 번역하고, NKJ는 “to be disorderly”(무질서하게 행동하다)로 번역한다. NIV는 ἀτάκτως를 “idle and disruptive”로 번역하였는데, 동사 ἀτακτέω에 있어서는 “disruptive”를 생략하고 “to be idle”로 번역한다. 『개역개정』은 ἀτάκτως를 일관성 있게 “게으르게”로 번역하다가 동사형인 ἀτακτέω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게 행동하다”로 바꾼다. 『공동개정』은 ‘게으르게 생활하다’로, 『새번역』은 ‘무질서하게 생활하다’로, 『현대인의 성경』은 “제멋대로”로 번역한다. 필자는 3:6의 ἀτάκτως와 3:7의 ἀτακτέω가 동일한 의미로 대응되어 사용된다고 본다. 바울은 3:6의 ἀτάκτως한 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며 자신은 ἀτακτέω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ἀτάκτως는 “게으르게”로, ἀτακτέω는 “무질서하게 행동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다분히 일관성이 떨어진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게으르게”와 “무질서하게 행동하다”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3:7의 ἀτακτέω의 번역에 있어서 3:6의 ἀτάκτως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ἀτακτέω를 ‘게으르고 맘대로(제멋대로) 행동하다’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번역은 ἀτάκτως를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한 것과 대응되며, 서로간의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만일 3:7의 ἀτακτέω를 3:6의 ἀτάκτως와 완전하게 대응시켜서 번역한다면 ‘게으르고 거역하게 행동하다’로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거역하게’를 ‘맘대로(제멋대로)’로 바꾼 이유는 3:6의 ἀτάκτως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게’로 번역한 것이지만, 3:7의 ἀτακτέω은 바울 자신을 향해 스스로에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맘대로(제멋대로)’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의 의미를 좀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본 논문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ἀτάκτως를 이해하여 번역을 제시한 것이지만,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ἀτάκτως를 “게으르게”로 번역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으

를 넘어서 반항적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도 이 점을 고려한다면 ἀτάκτως에 “게으르게”에 ‘거역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의 의미를 첨가하여 번역하고 그에 따라 3:6-15을 주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 결론

필자는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역사적 상황과 문맥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연구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데살로니가전후서에 나오는 ἀτάκτως의 형용사형인 ἄτακτος(살전 5:14)와 동사형인 ἄτακτέω(살후 3:7)의 번역을 제시했다. 영어 번역과 관련해서도 ἀτάκτως를 단순히 “idle”로 번역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학자들이 많은데, 필자 또한 한글 번역본인 『개역개정』이 ἀτάκτως를 단지 “게으르게”로 번역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 번역에 기초하여 ἄτακτος와 ἄτακτέω를 각각 ‘게으르고 거역하는 자들’과 ‘게으르고 맘대로(제멋대로) 행동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번역할 때 그에 대응하는 단어를 단지 하나만 선택하여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럴 경우 자칫 번역하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문맥과 상황에 비추어 온전한 번역이 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한글 번역이 ἀτάκτως를 한 단어로만 번역하여 “게으르게”(『개역개정』, 『공동개정』), “무질서하게”(『새번역』), “제멋대로”(『현대인의 성경』)로 제시하는데, 필자는 ἀτάκτως를 ‘게으르고 거역하는’의 두 단어로 번역함으로써 좀 더 충분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다고 보고 제안한다.

### <주제어>(Keywords)

데살로니가후서 3:6-15, ἀτάκτως, 종말론적 관점, 사회적 관점, 후견-피후견 관계.

2 Thessalonians 3:6-15, ἀτάκτως, eschatological view, social view, patron-client relationship.

(투고 일자: 2016년 7월 26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Bauer, W.,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evised and Edited by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regory K., *1-2 Thessalonians*,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Best, Ernes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86.
- Bruce, Frederick F., *1 & 2 Thessalonians*, Word Bible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2.
- Ellis, Edward E., "Paul and His Co-Workers", *NTS* 17 (1971), 437-452.
- Gaventa, Beverly R.,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8.
- Green, Gene L.,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 Hiebert, D. Edmond., *The Thessalonian Epistles: A Call to Readiness*, Chicago: Moody, 1971.
- Holmes, Michael W., *1 & 2 Thessalonian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Jewett, Robert, *The Thessalonian Correspondence: Pauline Rhetoric and Millenarian Piety*, Philadelphia: Fortress, 1986.
- Kittel, G., and Friedrich, G.,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0 vols,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64.
- Malherbe, Abraham J., *Paul and the Thessalonians*, Philadelphia: Fortress, 1987.
- Malherbe, Abraham J., *Social Aspects of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3.
- Malherbe, Abraham J., *The Letter to the Thessalonians*,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 Marshall, Howard I., *1 and 2 Thessalonians: Based o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3.
- Martin, D. Michael, *1, 2 Thessalon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 Menken, M. J. J., "Paradise Regained or Still Lost? Eschatology and Disorderly Behaviour in 2 Thessalonians", *NTS* 38 (1992), 271-289.

- Russell, Ronald, "The Idle in 2 Thess 3.6-12: An Eschatological or a Social Problem?", *New Testament Studies* 34 (1988), 105-119.
- Saller, Richard P., *Personal Patronage under the Early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Wanamaker, Charles A.,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x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0.
- Weima, Jeffrey A. D., *Neglected Endings: the Significance of the Pauline Letter Closings*,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01, Sheffield: JSOT Press, 1994.
- Weima, Jeffrey A. D., *1-2 Thessalon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14.
- Winter, Bruce W., "'If a Man does not Wish to Work...' A Cultural and Historical Setting for 2 Thessalonians 3:6-16", *Tyndale Bulletin* 40 (1989), 303-315.
- Winter, Bruce W.,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Christians as Benefactors and Citizens (First-Century Christians in the Graeco-Roma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1994.

<Abstract>

##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ἀτάκτως (ataktōs) in 2 Thessalonians 3:6, 11 and Its Translation Revisited**

Sun Wook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study is a proposal for translating the Greek ἀτάκτως (2Th 3:6, 11) to “idle and insubordinate” in light of contextual understanding.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ranslating ἀτάκτως simply into “idle”: for example, RSV and ESV translate this word into “idle”. Instead of rendering it into “idle”, however, NKJV translates it into “disorderly”, and NIV into “idle and disruptive”. I believe the Greek ἀτάκτως in 2 Thessalonians 3:6, 11 contains two meanings: “idle” and “insubordinate”. In the context of this passage (2Th 3:6-15), those who behave ἀτάκτως have the attitude not only of refusing to follow the tradition received from Paul and his co-workers (so its translation is “insubordinate”: 3:6; cf. 2:15; 3:14), but also of being unwilling to work (so its translation is “idle”: 3:11; cf. 3:10). Furthermore, while not working, they became busybodies whose behavior is disruptive to the church. In an eschatological view, the misunderstanding of Christ’s return led them to refuse working and to create disorder in the community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effort to build up treasure on earth would be unworthy at the end of time. The discussions about Christ’s return (1Th 4:13-5:11; 2Th 2:1-17) appear as a major subject in the Thessalonian letters, and this fact leads to the assumption that some of church members expected the eschatological events as imminent that they abandoned their jobs. They might have been the persons who were not willing to work and were disobedient to Paul’s apostolic teaching due to their misunderstanding and false teaching of the eschatological events. Because they also exerted bad influence on church members, church discipline was needed to correct them and to stabilize the church. Therefore, I believe the proper translation of ἀτάκτως is ‘idle and insubordinate’. In light of the translation of ἀτάκτως I have proposed, its adjective form, τοὺς ἀτάκτους in 1 Thessalonians 5:14 (the substantival use



of the adjective) should be translated into ‘those who are idle and insubordinate’; and its verbal form, ἠτακτήσαμεν in 2 Thessalonians 3:7 into ‘we were idle and disorderly’.